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대표전화: 1661-7575 호스피스과: 02-3779-1379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는 병원 내 호스피스 활동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81년 의과대학교 학생, 간호대학교 학생, 의사, 간호사, 병원 원목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임종 환자 간호 활동을 시작하다가 1987년 3월에 병원 내 호스피스과를 신설하였고 1인용 호스피스 병실 2개를 운영, 관리하면서 산재형(散在型) 호스피스의 형태로 그 틀을 발전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의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이념인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통 받는 말기 환자들을 총체적으로 돌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호스피스 형태는 산재형으로 독립된 병동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원목자, 자원봉사자, 사회사업가 등)이 각 환자의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지하고 돌보며 환자의 임종을 돕고, 사별가족이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양내과 한치화 교수(호스피스위원회 위원장)는 "임종을 기다리는 시기는 출생을 기다릴 때와 똑같이 대단히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과거 살아온 인생과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에게 정성어린 돌봄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호스피스를 지향하고 있다.

호스피스팀의 활동 내용은 호스피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돌봄(발마사지, 전신목욕, 샴푸 등), 정서적 돌봄 및 영적 돌봄을 통하여 그들이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가정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가정 호스피스로 연결하고, 임종 시 임종간호(연도, 입관, 출판 예절, 장례미사 참석 및 장지 동행 등)를 통해 사랑의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병실은 1인용 2개로 운영되고 있고 호스피스 대상자가 일반 환자와 함께 지내다 호스피스 병실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섬망, 심한 통증, 컨디션 저하 등) 이동하게 된다.

호스피스 팀은 원목실 산하에 있으며 원목 신부, 호스피스 전담 수녀, 의료 코디네이터(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각 1명과 자원봉사자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형태는 의료 코디네이터는 매일 종양내과 팀의 환자 브리핑에 의한 환자 정보를 듣고 이어서 대상자 방문을 통해 호스피스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진행 중에 있으나 신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호스피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호스피스 전담 수녀님은 영적 간호의 조정자로서 임종환자와 그 가족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랑과 화해'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한다.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은 종양내과 의국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되고 기타 과는 해당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1년 후 종양내과 병동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종양내과 병동내에 기존의 1인실 2개와 다인용 1개 및 목욕시설, 상담실, 집담회 사무실 등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 향후 호스피스 대상자의 집중화로 지금보다 더 양질의 호스피스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는 산재형 호스피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종양내과 병동과 호스피스 연계를 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와 실제적인 돌봄으로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과 주치의가 의뢰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병동 간호사, 병실 원목 수녀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코디네이터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담 후 호스피스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일 15~25명의 대상자를 자원봉사자 8~10명이 4개조로 나누어 방문 한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현재 6층에서 11층까지 분산되어 있으며, 종양내과 환자를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환자의 순이다.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는 산재형으로 일반 환자와 함께 지내며 호스피스 활동을 받게 되어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대상자들을 돌보는 활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보다는, 의학적 치료 중에 만남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을 받게 되어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매우 고마워하게 된다.

